

개선 가능하나, 폐지는 불가능

김인환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근 10년 사이에 학교가 급격하게 대형화되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사회의 직업체계를 재생산하는 것이 대학의 과제인데, 대학 졸업자들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쓸 만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소리가 사회의 여러 곳에서 여전히 들려오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의 변화가 대학의 발전보다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만으로는 각종 직업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갖출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노동체계의 재생산을 통하여 산업화의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기능이 그것에

그친다면 곤란하다. 자기가 택한 직업에 내재하는 기본 전제에 대하여 반성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화의 방향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도 대학 안에서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은 좋은 의사를 기를 뿐 아니라 의학의 생물학적 전제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기도 해야 한다. 직업적 소양과 반성적 태도를 충실하게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더 조직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학 안에는 학습방법의 개발보다 더 중대한 위기가 내재해 있다. 나는 고려대학을 나와 고려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으므로 고

려대학의 사정에 국한하여 이야기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아마 다른 대학에도 어느 정도는 해당될 것이다. 얼마 전만 해도 고려대학교 잠시라도 관련을 맺은 사람은 재학생이건 졸업생이건 중퇴생이건 누구나 高大를 자랑하고 高大를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데 조금의 주저도 보이지 않았다. 산업화가 해체시킨 고향의 분위기를 그들은 高大 속에서 변함없이 보존할 수 있었다. 이 나라의 어느 곳에서나 高大를 졸업한 사람이면 한결같이 중심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인간이라고 믿고 대접해 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머리가 좋건 나쁘건 돈이 많건 적건 高大라는 고

항 안에서 어울려 술잔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은 이 나라의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능히 함께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는 고향을 미워하는 자이다. 고향이란 바로 자기 운명의 뿌리가 아닌가. 高大 안에 뿌리 뽑힌 사람이 늘어가는 현상을 나는 고려대학의 최대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고려대학의 경우에 연세대학과 해마다 추석 전후에 추수를 감사드리는 제사 겸하여 치르는 정기 스포츠 경기는 고려대학의 정체를 회복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연세대학의 경우에도 틀림없이 그러할 것이다. 간혹 여기저기서 대학의 놀이나 잔치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왔다. 놀이나 잔치를 반대하며 내세우는 이유도 가지가지다. 학습에 지장이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이 바쁜 시대에 놀이가 무슨 놀이나는 식의 거부이유도 제기되었다. 내가 보기에 이 두 가지 이유는 모두 천박한 실용주의의 일종이다. 전쟁중에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인간의 생활이다. 내 자신 앞에서 나를 실용적 고려 없이 낭비하게 하는 놀이

야말로 바로 문화의 바탕일지도 모른다. 현실의 어두움을 감추는 것은 놀이가 아니라 위선이다. 놀이가 현실을 개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놀이는 현실의 어두움을 그대로 둔 채 현실에 대해 거리를 취하게 함으로써 현실을 훨씬 견딜 만한 것으로 변모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몸짓으로 표현하고 욕망을 가지게 하며 몸서리치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물의 거죽에 머무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물의 생산자로 변형시킨다. 쟁기나 삽이 여태껏 땅 속에 묻혀 있던 뿌리와 벌레와 작은 조각들을 별안간 처음으로 눈앞에 파 내놓듯이 놀이는 이성의 그늘 아래 숨겨져 있던 현실의 의미를 드러내 준다. 그리고 놀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함께 어울려 사는 체험이다. 학생들은 놀이하는 가운데서 고향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 경기는 운동선수만의 경기가 아니라 4만 명 학생들의 응원전이기도 하다.

노동이 없는 놀이는 공허하고 놀이가 없는 노동은 맹목이다. 엄격한 노동의 규칙은 무의식의 활동인 상상력과 균형을 이룸으로써만 건강한 삶

의 바탕이 될 수 있다. 경기하는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응원하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모두 자기를 잊고 하나가 되어 어울려 삶을 위해 헌신하는 기쁨에 젖으면서 고려대와 연세대의 학생들은 경쟁사회의 악착한 논리를 뛰어넘는 슬기를 배울 수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이날만은 대학과 학과와 학년을 초월하여 열싸안고 사회에 나가 있는 졸업생들도 이날만은 일상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청신한 자유의 약속을 새삼스럽게 다짐하였다.

외람되게도 내가 현재 부장으로 있는 고려대학교 농구부만 하더라도 1928년에 洪性夏 교수가 부장으로 부임한 후 학교의 정규보직과는 달리 朴希聖 교수처럼 학구적인 교수들이 주로 부장을 맡아 보직수당 한 푼 없이 월급을 털어 선수들에게 불고기를 사주는 전통이 어어져 왔고 1950년대에 코치를 맡으셨던 趙得俊 선생은 의사였던 사모님의 돈으로 매일 선수들의 급식을 해결하셨다. 고려대학의 교직원들은 지금도 고려대학 농구부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가 모교 농구부에 대한 포부를 다 펴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他界하신 그 분의 열정을 기억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의 정기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득보다 실이 많고 시대적으로 그 의미가 약화되고 있는 행사라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정기 경기를 마친 날 저녁에 잠실 운동장에서 롯데월드까지 이어지는 학생들의 행렬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로 부터 이러한 비판을 들어왔다. 그러한 의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이 사회가 이제 대학생들의 생생한 활기를 몇 시간도 너그럽게 감싸안아 줄 수 없을 만큼 답답해졌다는 현상의 표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지만, 비판과 반대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양교의 경기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질풍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양교의 경기만이 유일하게 과거를 답습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첫째, 양교의 경기에 추가하여 교내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대학의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학과의 학생들도 서로 알지 못하고 지내는 형편이 되

어 버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과와 학과, 대학과 대학 사이의 대화는 영영 단절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인문교양과 자연과학의 대립을 크게 염려하면서 스노우는 우리의 문화를 이미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없다고 한탄하였다. “삼십 년 전에 두 문화는 서로 이야기하기를 그쳤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틈을 넘어 차가운 미소나마 지어 보이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제는 최소한의 정중함마저도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찌푸릴 뿐이다.” 스노우가 이렇게 경고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두 문화라니! 극심한 분배의 격차가 한 국민을 두 국민으로 분열시키듯이 한 시대의 문화가 균형과 조화를 잃으면 삶의 양식은 파탄에 직면한다. 인문교양과 자연과학의 만남은 우리 시대의 기본적인 요청이다. 그리고 인문교양과 자연과학의 대화는 이성적 토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운동과 놀이에 의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 사람이 먼저 친해져야 이야기가 통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상에는 문학이나 물리학이 있다기보다 문학자의 일과 물리학자의 일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정기

경기가 해마다 개최된다면 대학 안에서 문과대학생과 이과대학생의 상호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운동이냐는 교수들이 간혹 있지만 나는 공부, 공부 하는 교수치고 좋은 학자를 본 적이 없다. 학문에도 학습에도 여유와 즐거움이 필요하다.

둘째, 운동선수의 스카우트와 학점관리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1958년에 졸업한 허만우 선배는 재학 시절 농구부장이었던 박희성 교수의 심리학 강의의 학점을 따지 못해 세 학기를 더 다녀서 졸업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무너진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국제경기에 우수한 성적을 내고싶은 욕심 때문에 박 대통령은 문교부에 체육특기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무시험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20년이 지나자 운동선수가 되려는 학생은 국민학교에서부터 공부를 하지 않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중에는 교실에 운동선수들의 책상이 아예 없는 학교가 있다. 학점관리와 스카우트에 반드시 미국을 예로 들 필요는 없다. 돈을 주고 스카우트하면 시합에 참가할 수 없고 운동선수의 학점은 B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현금 카드가 비밀히 전달되고 학점담당 코치와 리포트 담당 비서들에 의하여 학점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전혀 비밀이 아니다. 엄연히 대학 선수로 뛰고 있는 학생이 영어를 읽지 못하여 텔레비전의 뉴스 거리가 된 적도 있었다. 교육부가 아닌 한 대학으로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스포츠 교육을 개선할 수는 없다. 이미 있는 제도를 거쳐 올라온 선수들을 가르치려면 정규 과목의 교육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체육과의 교과과정에 운동선수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과목들을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대학의 체육위원회가 몇 가지 교양과목과 체육이론을 따로 학습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라는 요구는 지나친 욕심이다. 수학과 학생은 수학만 잘하면 졸업하는데, 수학과 학생이 수학공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왜 졸업을 하지 못해야 한단 말인가? 학교에의 기여도나 나라에의 기여도로 보아도 고시에 합격한 학생의 기여도보다 축구선수 차범근의 기여도가 오히려 클 것이다. 지금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대학의 운동선수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지식의 체계이고, 그러한 지식 체계를 학습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기는 단순한 교내 경기가 아니므로 최고의 선수들을 스카우트하여 4만 명의 양교 학생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한다. 양교의 경기는 전문 경기이지 素人 경기가 아니다. 그것은 고려대학의 화학실험실이 대웅제약의 화학실험실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고교 팀과 대학 팀과 실업 팀과 프로 팀 사이에 흐르는 돈의 회로인데, 이것도 사실을 외면하는 한가한 명분론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양식과 상식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이 사회에서 유리되어 있는 섬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일부이다. 교육부의 체육특기자 명단을 아예 없애고, 각 대학이 고등학교 선수들을 자유로 뽑고 추후에 교육부에 보고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고, 만일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해 금전이 수수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쓰게 하고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스카우트 비용을 양성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눈 가리

고 아웅 하는 식의 도덕으로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 고려대학의 농구부장으로서 나는 고려대학에 대한 농구부의 기여도를 높이고, 70년이 된 고려대 농구부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리로 환원할 수 없는 완강한 사실들과 싸우면서 교육적 효과를 증진하는 데 나의 정성을 다할 따름이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기업체와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와 대학교가 얼크러져 있는 한국 스포츠의 현실에서는 고려대학교 체육위원회가 대학교육의 정도를 지키면서 의연히 대학스포츠의 질을 높여 왔다고 자부한다. 고려대나 연세대의 경우에 스포츠는 단순논리로 알기 알부할 수 없는 大學史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개선은 가능한 현실이나 폐지는 불가능한 몽상이다. ■

김인환/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교 농구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문학과 문학사상』, 『상상력과 원근법』, 『비평의 원리』, 『동학의 이해』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문학과 정신분석”, “64개의 새로운 분류” 외 다수를 발표했다.